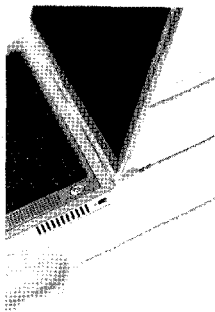




— 조합 · 업계소식



- 제지 · 골판지포장산업 신년하례식 공동 개최
- 골판지원지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 『골판지포장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 교육』2차 대구에서 열려
- 브루나이(brunei)술탄왕국 민간 사절단, 골판지포장업계 방문
- Seoul Pack 2010 전시회, 일산 KINTEX에서 개최
- 골판지포장조합, 협동조합 특화사업 부문 대상 수상
- 농산물상자 중량허용오차 $\pm 5\%$ 의결
- 골판지포장조합, 총 600만원 농촌장학기금 전달
- 유니패킹(주), 대양그룹에서 인수 완료
- 한솔제지, 골판지원지 제조업체 대한페이퍼텍 인수
- 폐지 가격 폭등 우려에 긴급간담회 개최

제지 · 골판지포장산업 신년하례식 공동 개최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권혁홍)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은 1월 13일 18시, 팔레스호텔에서 “2011년도 제지 · 골판지포장업계 합동 신년하례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김진무 골판지포장조합 전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조합 이사장과 삼보판지 류종우 부회장, 태림포장 조병한 부사장, 아세아제지 이재홍 사장, 아세아페이퍼텍 박원희 사장, 아사히마시나리 이상희 사장 등 5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골판지원지의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신뢰보다는 불신, 공감보다는 부정적 시각을 통해서 마주했던 그동안의 관계를 청산하고, 지속성장 골판지포장산업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정립하자는 취지로 제지조합 권혁홍 이사장의 제안을 오진수 이사장이 수용하면서 비롯된 공동행사였다. 제지업계를 대표하여 축사를 한 동일제지 정영섭 사장은 이러한 모임은 양업계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다는 반증이고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골판지포장업계를 대표하여 이완중 한덕판지 사장은 ‘제지 및 골판지포장업계에 몸 담은지 45년 동안 오늘같이 흐뭇한 모임은 처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상호 협력과 신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건배사를 한 제일산업 손명섭사장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끝자락에서 금년은 골판지포장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수급 및 가격 모든 분야에서 안정된 시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는 기대를 담아냈다.

이날 신년하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제지연합회 이상문 회장, 지합조합 박정일 이사장, 제지재생원료조합 임익수이사장이 참석하여 신묘년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권혁홍 이사장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오진수 이사장



(왼쪽부터)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정규성 전무이사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권혁홍 이사장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오진수 이사장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김진우 전무이사



골판지원지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지난 11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국산폐지 가격이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힘입어 다소 주춤거리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 중순까지 톤당 19만원대로 장기간 보험세를 보여 온 폐지가격이 12월 중순 들어 1개월 사이에 24만원까지 폭등하여 관련업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었고, 급기야 지경부에서 긴급 제지 및 폐지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지업계의 폐지 매집 경쟁 자제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폐지의 수입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를 촉구하게 되면서 다행스럽게 폐지가격이 톤당 3만원 인하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동안 폐지업계나 골판지원지업계는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손쉬운 방법으로 골판지원지가격에 전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을 죽이는 매우 나쁜 방법이다. 골판지원지업계는 라이너를 생산하면서 배합해 왔던 펄프나 수입폐지(AOCC)의 투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폐지 사용률을 높임으로서 이익을 확보하고, 원료인 폐지가격이 인상되면 쉽게 골판지원지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적당히 외면하는 게 골판지원지업계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정서지만 이야말로 소탐대실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폐지업계나 골판지원지업계가 경영이나 가격 수급 등의 전략을 잘 써서 이익을 남긴다 해도 궁극에는 골판지 상자 시장을 살피지 않은 이익실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포장 수요자들이 골판지상자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작정 골판지포장재를 선호하는 고객이 아니라 는 것과 타포장 소재에 대하여 비교열위에 있다면 즉각 시장을 외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유수의 D제과회사는 그동안 인상되는 골판지상자가격이 부담되어 재사용(Reuse)을 검토한 이래 수년간 3~4회 골판지상자를 재사용함으로써 포장재 구입비용을 절감하였다는 사례도 있지만, 수요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골판지상자를 외면하게 될 것이고, 연쇄적으로 골판지원지와 폐지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즉, 폐지업계의 조그마한 욕심과 골판지원지업계의 귀찮다는 식의 부화뇌동으로 골판지상자가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궁극에는 골판지포장시장을 상실하고 종국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할 터전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골판지상자 시장을 키우고 지키는데 한 점 기여도 없는 무임승차자들에 의해 우리시장이 유린되고 왜곡된다면 사회정의에도 위배되는 노릇 아니겠는가. 폐지업계와 골판지원지업계는 골판지원지, 폐지(OCC)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골판지상자시장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장기적인 골판지상자 가격 안정화를 실현시기 위해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일경제

원자재값 무섭게 치솟는데 중소, 납품가 못올려 고민

대·중기 相生 과열음

경기도 안산시에서 골판지 포장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무섭게 치솟는 원자재값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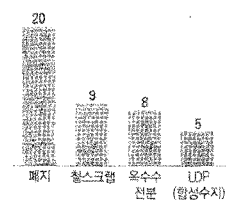
골판지의 주원료인 국산 폐지값은 이달 들어서만 20% 이상 올랐다. 골판지 상자 제조 원가에서 폐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70%로 절대적이다. 그만큼 타격이 큼 수밖에 없다. 실상가상으로 부자재값도 뛰고 있다. 골판지상자 제작제로 쓰이는 펄수수 전분 가격은 이달 들어서만 8% 올랐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대기업은 도리어 "내년 납품단가를 무조건 올려 보다 5% 이상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A씨 얘기다. 그는 "근거도 없이 박무기대로 납품 단가를 낮추려는 얘기만 한다"며 "차체적인 원가절감 노력도 한계가 있지 폐지값, 부자재값, 인건비, 운반비가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고 한소연했다.

해법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 상승에 신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파제품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존 재료값이 오르면서 재료를 비싸게 구매하면서도 결과 납품 때는 원자재값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8일 판

한 달 새 급등한 원자재값 상승률 (단위:%, 올해 12월 기준)



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새 일부 원자재값 상승률은 두 자릿수에 달한다.

골판지 상자의 주 재료인 국산 폐지 가격은 지난 9월 말 1톤 13만원에서 지난달 말 20만원, 이달 중순 24만원으로 급등했다. 석 달여 제 안 돼 33%가 올랐고, 이달 들어서만 20%가 올랐다.

주물제움의 주원료인 첩스크랩(고철) 가격도 이달 들어 크게 올랐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말 1kg당 523원이었던 첩스크랩 가격은 이달 들어 570원으로 뛰었다. 특히 공작기계와 조선기자재용 주물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회확물질인 프란수지는 1kg당 가격이 최근 두 달 새 3200원에서 4400원으로 40% 가까이 치솟았다.

전선업체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에서 많이 쓰는 유리 값도 상

승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 7월 1톤 800만원 선이던 유리 가격은 최근 1톤 1100만원까지 올랐다.

합성수지 중 가장 많이 쓰이는 LDP는 1톤 가격이 지난해 말 17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을 넘어섰고, 이달 말 10만원가량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페인트 제조에 쓰이는 아크릴수지와 에폭시수지 가격도 각각 지난해 대비 50%, 35% 올랐다.

중소기업들은 정부·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도 내놓고, 이달 들어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대기업들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변함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납품 거부 사태까지 빚어졌던 주물과 납품 거부 작전까지 갔던 골판지 등 민감한 업종의 원자재값 상승 폭이 커 납품단가를 올려 한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내년 초 다시 불거질 우려도 제기된다.

조선기자재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한 주물업체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으니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이달 중순 요청했지만 아직 감응무소신"이라며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못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저런 핑계할 때 납품단가 인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건 예년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A3면
노후·박은정·김다영 기자

원자재값은 뛰는데 샌드위치 중기 납품단가는 그대로

골판지 재료값 20% 올랐는데 “납품가 5% 깎아라” 강요도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업체를 경영하는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는 최근 원자재 값 상승이 걱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인 남민우 대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출범식 말고는 간담회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현안이 있을 때 논의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향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원자재를 사들인 뒤 이를 재가공해 다시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원료를 비싸게 사야 하지만 납품 가격은 그만큼 올리지 못하는 이고고를 겪는다. 이른바 대기업들 사이에 전 ‘샌드위치 신세’다.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원자재 값 상승은 밀 그대로 ‘생존의 문제’다.

예전에 비해 납품단가 인상 요구는 당당해지고 있다. 주물업체의 경우 공작기계와 조선기자재 관련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이 이달 들어 첼스크림 가격이 급등하고 부자재인 프란수지 가격도 치솟자 지체 없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주철조합은 조만간 첼스크림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다음달 초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해 납품단가 인상 요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한 주물업체 대표는 “프란수지 가격 폭등만으로도 kg당 100원 이상의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라며 “재산성 약화를 견디다 못해 주물 제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1차 벤더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했더니 ‘원사업자가 아직 별다른 의견 표명이 없다’ ‘다른 1차 벤더가 올려주면 우리도 올려주겠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모른 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 입찰 관행도 여전히다는 중소기업들을 지적한다. 한 전선업체

사장은 “제조원가 중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나 되는데 최근 구리 값이 20% 가까이 올랐다”며 “주요 수요처가 대형 건설사들인데, 건설 경기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 원자재 값이 오른다고 납품단가를 알아서 올려주는 곳도 없고 수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수요가 있더라도 대기업이 입찰을 부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장을 돌리기 위해 용어 겨자 먹기로 재료비 이하로 수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 페인트 업체 대표는 “이크릴수지 50%, 에폭시수지 35%, 용제 10% 등 원재료 수입 가격이 일제히 크게 올라 재료비 부담만 지난해 동기보다 10% 늘어났다”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 가격 전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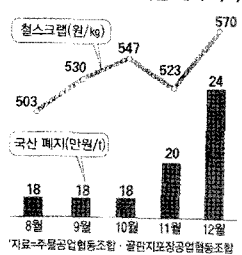
한편 지식경제부는 폐지 가격 급등이 문제가 된 지난 1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지업체와 폐지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골판지산자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폐지 가격을 안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경부는 제지업체와 폐지업체에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납품단가 문제를 둘러싸고 올해 초 발생했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며, 폐지 가격 폭등은 시장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 불가당국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원료 가격을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형 기자

치솟는 첼스크림·국산 폐지 가격



원자재값은 뛰는데 샌드위치 증기 납품단가는 그대로

대기업 “글로벌 경쟁 감안해야... 납품가 조정 시간필요”

대기업들은 지난 8월부터 협력사 간의 상생활동에 적극 나서 집진적으로 납품가 현실화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다소 선금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과 고객과의 계약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제품 가격을 수시로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원자재 값 인상을 그대로 고스

란히 납품가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은 8월부터 정부의 독려에 맞춰 상생활동을 강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원자재 값과 납품가 연동 △협력사에 대한 금융 지원 △대금 결제 조건 개선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방안을 쏟아냈다.

주요 기업들은 이런 대책에 맞춰 원자재 값 상승을 반영해 납품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이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세계 입장이다.

A기업 관계자는 “원자재 값과 연동해 납품가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올릴 수 없다”며 “협력사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은 납품가를 올릴 경우 제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신중한 편이다.

따라서 원자재 값에 맞춰 납품가를 조정하더라도 원제품 가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소연한다.

대기업들은 또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 없이 원자재 값 변동분을 납품가에 전적으로 반영

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B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기대려고만 해서 ‘협력사’라는 관념이다”며 “중소기업도 실력을 키워려는 부단한 노력이 수반돼야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금융 지원과 경영 지원 등을 통해서도 협력사들을 돕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은 계산에 넣지 않은 채 납품가만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정승훈 기자

어려울때 고통 분담이 진정한 동반성장 이끌어

전문가들의 상생 해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원가 절감을 내세우는 대기업들이 이를 협사의 수용하진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어려움이 더해가는 이때야말로 대·중소기업 협력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히려 지금이 동반 성장이 잡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상황이 좋을 때는 대기업들이 이익을 나누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어려울 때 어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하는지 잘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사례는 나올 것”이라면서 “대기업에서도 원가 절감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만큼의 인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강석 IBK경제연구소장은 “대기업들이 경쟁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납품단가를 인하하려는 곳도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정우 교수는 “서유화학, 철강 같은 기초재료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업종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 미리 중소기업에 알려주고 사전에 적정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재료를 중소기업에 판매하고 나서 한참 후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미 판매한 제품 가격까지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기업의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곽수근 교수는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동반 성장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 “대기업 내에 서부터 1년짜리 성과표가 아닌 장기적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으로 동반 성장들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이 이뤄지도록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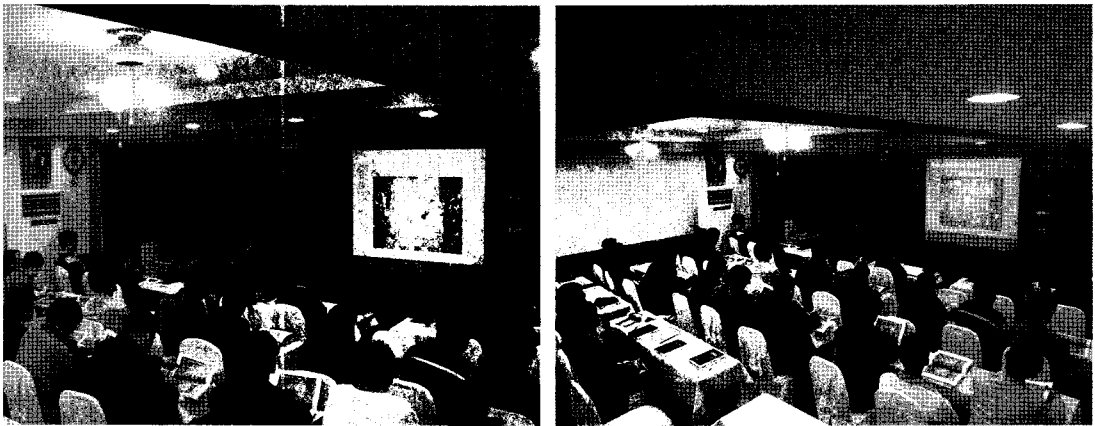
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동반성장지수도 마련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상생에 실천하고 미래 가능성을 내다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강석 소장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고 이해 당사자 간에 조정이 돼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면 결국에는 대·중소기업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수근 교수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무조건 가격이 싼 제품만 찾은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이들 제품을 구매하는 문화를 기를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형·강다영 기자

2010년도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골판지포장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 교육』2차 대구에서 열려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지난 10월 8일(금)~9일(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 “2010년도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 골판지포장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교육 1차(이하 골판지 기술혁신 교육)”를 안산 대부도에서 진행한데 이어 11월 5일(금)~6일(토) 1박2일 동안 중부이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골판지 기술혁신 교육 2차”를 진행을 하였다. 이날 열린 골판지 기술혁신 교육 2차 연수대회에는 중부이남권지역 12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되었다.



골판지 기술혁신 교육은 1차와 동일한 강의로 진행이 되었으며, 1강 ‘물류표준화 및 농산물 표준규격’, 2강 ‘지류포장재의 유해 중금속 점검과 대응전략’, 3강 ‘골판지용 전분제호기술’, 4강 ‘골판지포장 표준화 및 효율화 방안’ 등의 순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첫날 교육이 끝나고 마련된 만찬 자리에서 교육 참가자들은 “골판지제조 및 생산관련 기술교육 연수가 지방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도권과 지방의 기술정보 격차를 차츰 줄여나가면 지방기업들에게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며 입을 모았다.

2011년도에도 골판지포장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하는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브루나이(brunei)술탄왕국 민간 사절단, 골판지포장업계 방문



11월 2일 브루나이 민간사절단 골판지포장조합 방문

브루나이국에서 골판지포장산업 투자 검토를 위해 주브루나이 주재 한국대사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브루나이 정부관계자 및 민간사절단 11명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하 '골판지포장조합') 및 골판지포장관련업체를 방문하였다. 11월 2일 9시30분경에 조합을 방문한 사절단 일행은 골판지포장조합 오진수 이사장과 조합임직원의 환영인사를 받았으며, 이어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의 한국골판지포장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사절단의 방문은 한국골판지포장산업을 롤모델(ROLL MODEL)로 삼아 브루나이 현지에 골판지 공장 건립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

이기 때문에 '골판지포장사업의 투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대영포장(주)발안공장을 방문하여, 황성열 상무이사의 '대양그룹 기업소개'를 시작으로 대영포장(주)발안공장의 코르게이터, 인쇄기, 톰슨기 등 골판지 제조·생산 설비를 견학하였다. 또한 이날 화성산업기계를 방문하여 골판지포장기계 공장 견학을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인 11월 3일 오전에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태림포장공업(주) 본사를 찾아 태림포장공업(주) 그룹소개 및 골판지 제조 공장견학을 하였다. 태림포장공업의 공장견학에 이어 동일제지와 (주)대성C&C를 방문하여 제지회사 및 골판지상자 제조회사 공장 견학을 마치고 브루나이 민간사절단은 한국 주재 브루나이 대사관저를 찾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 방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일정을 모두 마쳤다.

브루나이 민간사절단 안내를 받았던 골판지포장조합의 신봉호 부장은 "브루나이국 민간 사절단은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정적이고 한국의 골판지포장시설에 대해 감탄을 아끼지 않았으며, 브루나이국 내에 골판지포장공장 설립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경영·기술 자문을 위한 한국 측의 투자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며 브루나이 사절단에 방문에 대한 소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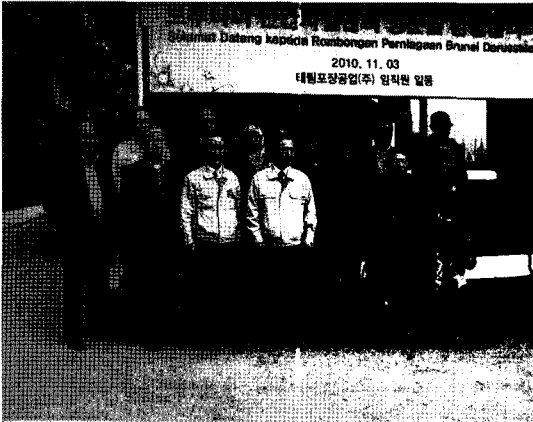
남아시아 보르네오섬 북부 해안에 있는 술탄왕국으로 1984년 1월 독립하였다. 정식명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으로 '평화의 공동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국토 85%가 숲과 삼림지대이며, 경작할 수 있는 땅은 5% 정도이나 풍부한 석유자원과 천연가스로 인해 세계 최고 부자국가의 하나이다.



브루나이 민간사절단 대영포장(주) 발안 방문



브루나이 민간사절단 화성산업기계 방문



브루나이 민간사절단 태형포장공업(주) 방문



브루나이 민간사절단 (주)대성C&C 방문

구 분	대 한 민 국	Brunei
면 적	221,336km ²	5,770km ²
수 도	서울(Seoul)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
종 교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천주교 등등	이슬람교(67%), 불교, 그리스도교
총 인 구	50,000,000명 ('10년도 기준)	382,000명('08년도 기준)
1인당 GDP	1만 6449\$ (2009)	2만 6325\$ (2009)

Seoul Pack 2010 전시회, 일산 KINTEX에서 개최

(사)한국포장기계협회(협회장 이일해)가 주최하는 ‘Seoul Pack 2010’ 전시회가 지난 11월 16(화)~19(금), 4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었다.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Seoul Pack 2010’ 전시회는 2010년도 경기도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었으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및 포장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녹색 포장 전문 전시회를 표방하고 있으며, 포장재료, 포장용기, 포장재가공기계, 포장기계, 식품·제약·화장품 생산기계, 포장용인쇄기계, 포장관련 특허제품 등 국내외 포장기계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국내 포장산업의 대표적인 전시회이다.



‘Better Packaging, Better Life and Better Earth’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총 18개국, 230개사(국내 182개사, 해외 48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총 18,113명이 관람을 하였다. 또한 제12회 포장기계인의 날 기념식, 제11회 포장기계대상 장관포상 시상식, 한·중·일 3국간 공업포장기술 교류회 서울대회, (사)한국포장학회 추계학술 심포지엄, 수출 상담회 및 기술세미나 등 다

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전시회의 의미를 드높였다.

이번 전시회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도 참가하여 골판지포장조합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골판지포장산업의 전반적인 소개와 골판지포장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골판지포장조합, 협동조합 특화사업 부문 대상 수상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이 12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장(회장 김기문)이 수여하는 「2010 협동조합 대상 포상」에서 '특화사업부문 대상' 을 수상한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 해 동안 창의적인 조합 운영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등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합을 발굴하여 대외홍보 및 타 조합 발전 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 연말에 시상을 한다. 대상 수상의 선정 기준은 조합 운영건실도와 재정건전성 및 협동조합 운동 참여도 등과 사업실적, 창의적 업무수행 등을 판단하여 대상 조합을 정한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자체사육을 갖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흑자운영 지속 등 재정건전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옥수수전분의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 및 (주)코르피아 설립 운영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되어, 이번 「2010 협동조합 대상 포상」에서 '특화사업부문대상' 으로 이어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로써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2007년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두 번 신청에 두 번 모두 수상하는 저력을 보였다.



농산물상자 중량허용오차 ±5% 의결

농림수산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 심의회 규격분과(위원장 경규향 세종대 교수)는 지난 12월 21일(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백중호) 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크기구분에 따른 호칭(표기)변경 및 조정, 농산물포장재의 중량허용오차 설정 등 5개 안건을 심의하여 개정키로 하였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의 크기구분의 호칭을 종전 '특대, 대, 중, 소'를 'L, M, S' 등으로 변경하여 유통상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하였고,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을 새로 제정하였다. 그동안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표준 품질규격이 없어 생산업계 및 유통업계의 일관된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중량허용 오차의 기준을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 및 지대 등에 ±5%로 명시하여 현장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골판지포장조합, 총 600만원 농촌장학기금 전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하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11월 4일에 농협성주군지부, 농협청도군지부, 칠곡군지부, 신김포농협, 송산농협을 통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농촌장학기금을 전달하였다.

골판지포장조합은 '골판지포장산업의 이미지제고와 농산물포장용골판지상자를 사용하는 농민에게 다수의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다'는 취지로 농촌장학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농촌장학생대상자는 성주군 3명, 청도군 3명, 칠곡군 2명, 신김포 2명, 송산 2명으로 총 12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기금을 장학증서와 함께 전달하였다.

지역	추천농협	이름	소속	학년
성주군지부	성주참외	배태원	위덕대학교	3학년
성주군지부	성주농협	김승희	성주고등학교	1학년
성주군지부	선남농협	이광준	한국폴리텍VI대학교	2학년
년청도군지부	산서농협	김지수	영남대학교	2학년
청도군지부	산서농협	박재환	계명대학교	1학년
청도군지부	산서농협	조현주	대구가톨릭대학교	2학년
칠곡군지부	북삼농협	이주승	사곡고등학교	2학년
칠곡군지부	북삼농협	유수연	사곡고등학교	3학년
신김포	신김포농협	조성울	하성고등학교	1학년
신김포	신김포농협	이성규	양곡고등학교	2학년
송산	송산농협	이해원	송산종합고등학교	3학년
송산	송산농협	홍경수	중국상해사범대부속고	3학년

유니패킹(주), 대양그룹에서 인수 완료

대구 · 경북지역 유수의 전문골판지포장기업인 유니패킹(주)(대표이사 정만수)가 2010년 11월 1일로 대양그룹에 인수되었다. 공산품 및 농산물 골판지상자를 전문 생산하는 유니패킹(주)는 정만수 대표이사가 1979년에 대세포장(주)로 설립한 기업으로 대구 ·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전문골판지포장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었다. 이에 대하여 정만수 대표이사는 “30여년 이상을 골판지포장업계에 몸담으면서 업계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동종업계 사장님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물러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도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양그룹은 이번 유니패킹(주)를 인수하면서 대구지역에만 3개의 공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기존 인수한 삼화포장은 대영포장(주)성서공장, 유니패킹(주)는 대영포장(주)달성공장, 신규 건설 중으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공장은 대영포장(주)대구공장으로 명칭을 정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솔제지, 골판지원지 제조업체 대한페이퍼텍 인수

지난 2011. 1. 11일 한솔제지는 기존 인쇄용지(과자케이스 등 포장용 용지)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골판지원지 제조라인을 보유한 대한페이퍼텍(주)(대표이사 조성호)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는 한솔제지를 포함하여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신안포장산업 등 4개사가 입찰에 참여 했으며 인수대금은 450억 ~ 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솔제지는 기업실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1년 6월 이전에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페이퍼텍은 대주그룹의 핵심계열사로서 2000년 구 양영제지(주)를 인수하여 설립한 연간 20만톤 생산 규모를 갖춘 골판지원지 업계의 중견기업으로 2010년 기준 매출액은 900억원 가량이다. 대한페이퍼텍은 2009년 모그룹이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작년 초 딜로이트안진을 매각 주관사로 정해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공개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솔제지는 기존 인쇄용지와 신규 골판지원지 생산라인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동반성장을 꾀하는 것을 올해의 중점 추진목표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솔제지 오규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고객 중시경영으로 성장기반을 확충하면서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이제 종이시장도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고객사 직원 교육, 원부자재 통합구매 지원 등을 통해 고객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인쇄업계가 많은 수익을 내면 제지업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한솔제지의 판단이다.

폐지 가격 폭등 우려에 긴급간담회 개최

최근 폐골판지상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톤당 19만원 수준에서 장기 보합세를 보여 왔던 폐지가격이 최근 들이 24만원 수준까지 폭등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골판지원지, 골판지상자 가격이 연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처럼 폐지가격이 상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동절기로 접어들어 수급 불안조짐이 나타나면서 일부 업체의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12월 17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긴급 제지 및 폐지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 초 발생한 골판지상자의 급격한 가격인상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폐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수급 당사자들의 상환 인식과 실천의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하여 제지조합 권혁홍 이사장은 '폐지 부족으로 인한 폐지가격 인상이 폐지의 수출로 인한 원인인지 경쟁업체간 매집경쟁이 요인인지 잘 살펴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폐지의 수입도 조합 차원에서 적극 고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만성적인 폐지 부족이 발생하는 주요인은 종전에 펄프 및 수입폐지를 주로 배합하여 고급라이너를 생산하였는데, 최근 들어는 품질에 관계없이 국산폐지 사용률을 높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하고, 'KS규격에 부합한 품질의 제품생산을 통해 신뢰받는 골판지포장업계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폐지업계든 골판지원지업계든 골판지상자 시장을 키우고 지켜내는 것만이 공통의 시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2011년에는 가격과 수급 모든 분야에서 골판지포장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